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의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부흥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5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4주년을 맞으며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은혜를 감사하자

고난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 되어야

감사의 기초는 기억이다. 한 해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
로 보답할 수 있을까. 보이는 은혜도 크고
놀라왔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더
욱 아름다웠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하라"(살전 5:18)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
겠지만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더욱 감
사하자.

빈 손으로 4년 전, 옆드려 울던 우리에
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다. 논현동 6층
다락방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공물을 구했고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 달라고 기도했
더니 40년 동안에도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일
들을 4년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셨
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아직은 미진하고 온
전치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며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
혜를 어찌 다 감사할까.

지난 날의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고만 있기



이종윤목사

에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놀라와
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는 눈 앞에 전개되는 새 세계의 손길을 바라보
며 한숨 대신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실의
와 좌절 대신 감사를 드려야 한다. 개척자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
이다.

세상에는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신장군처
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이가 있듯이
우리 중에 흑이라도 특대 받기를 좋아하며 스

스로 해야 할 감사보다 자신은 천대를 받
고 있다고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이
가 있을까 두렵다. 성군 다윗은 국토를 확
장하고 국위를 사해에 선양하며 여호와
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자
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받고 있다고 했
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
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내 뜻대로 안되었다고 불평하는 이는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사
건을 축복으로 변질시켜야 하고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들로 만들어야 하며 내가 서 있는 모
든 곳을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야 한다.

올해의 감사절엔 작은 축복에도 감사해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
이 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
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자.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4주년 행사

- 성찬식과 떡잔치, 감사찬양예배 -

오늘은 '95추수감사주일이다. 아울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
리라" 하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던 4주년을 맞는 교
회의 생일이기도 하다. 교회는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올 한해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예식을 통
해 주님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간구하게 된
다. 헌금 시간에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린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교회당 앞에서 감사와 축하를 나누며 떡을 떼
는 잔치도 벌릴 예정이다. 이 잔치는 당회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표
시로써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감사찬양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잊지 못할 특별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
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주님께 받은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
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있는 날로 삼아야겠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소외된 이웃과 사회, 나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과 나누는 풍성한 감사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95 비전 2000운동 승전감사예배

- 생활을 통한 전도 계속되어야 -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진행해 온 '95 비전
2000운동이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95 비전 2000운동 기간동안 우리는 일곱가지 기도제목과 전도대상
자를 놓고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전교인합심기도, 새벽기도회 및
금요기도회 등 각양의 모습으로 기도하기에 힘써 왔으며, 70인 전도단
을 구성하여 전도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노방전도 축호전도 등으로 전
도 활동을 펴 왔다. 비전 2000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초청 찬양집회
「그나라 2000」과 어린이를 위한 초등부 찬양대 발표회 「나는 주의 어
린 양」을 개최하기도 했고,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한 서신 발송 등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 해왔다.

'95 비전 2000운동은 오늘로써 50일간의 행진을 마치고 그 막을 내
리게 된다.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
음으로 매일 매일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세
련된 전도 기술보다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더 큰 호소
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는 선생님 만난 것 감사해요”

이운재 (초등부)

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한다. 처음 4학년이 올라갔을 때 선생님이 무뚝뚝한 분인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선생님께서는 일기장을 내면 꼭 좋은 말씀을 써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든가 교회 생활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써 주셔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주시는 특별상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산이나 공원에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그것도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 친구들, 노력을 많이 해서 학교생활이 좋아진 친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특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딱 생긴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일이 나에게서는 최고로 감사한 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혜연 (유년부 교사)

국민학교 5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주일학교 연합으로 덕수궁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 제목은 ‘감사’였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유난히도 많이 떠오르는 청명한 가을날이었고 그 당시 제법 시(詩)다운 시로서 그 때에 내가 만난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써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제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유년부 학생들과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성극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은 처음하는 연기가 어색하

고 힘들듯 보이지만 내가 어릴적의 추억을 간직하듯 그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을 추억하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감사를 기억하겠지.

올 추수감사절에는 벽찬 감사의 제목이 또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신영(信榮)이를 허락하셨다. 우리 신영이도 지금 성극을 준비하는 유년부 아이들처럼 수년 뒤의 추수감사절에는 자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평온하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우리 신영이나 성극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는 서울교회의 새싹들이 키가 자라듯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날 터이니 그것을 보면서 나의 감사도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성숙해져갈 생명들에게도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솟구치는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기쁜 감사절을 맞는다.

내 유년 시절에 만난 멋진 하나님, 오늘 유년부 어린 생명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멋진 하나님, 우리 신영이의 삶속에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우실 멋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기쁨, 이 감격 형언할 길 없습니다”

이영희 (집사, 2교구)

낙엽이 나뭇굴고 풀들도 마지막 남은 햇살을 받으며 아프게 말리는 계절의 질서를 바라보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들 뿐이고 감사할수록 감사해서 표현의 부족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추수감사절이 항상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 교회의 설립

일과 겹치는 이유 때문입니다. 4년 전, 살을 깎는 듯한 아픔과 무수한 응어리를 달래면서 형태없이 모였던 서울교회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왔고, 느슨해지기 쉬운 찰라에 올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큰 일들을 통해 저와 같이 작은 자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세 기둥을 든든히 하고, 목회자신학세미나, 킷치세미나, 100교회 운동 등으로 새 일을 할 때 새 힘이 생기며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풍요함과 기쁨을 맛본 것이 감사합니다.

임태치 못하던 여자의 잉태한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성전부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다가 보여주신 일, 분명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너무 기뻐 울고, 웃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섭리를 너무 가까이서 체험하며 경외심마저 가지게 되는 감사한 마음을 정말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첫 사랑의 감격을 간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사를 마음 깊숙히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첫번째 추수감사절”

1620년 9월 6일,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오는 도중에 심한 질병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이 죽고 여자 24명, 남자 54명, 도합 78명만이 간신히 상륙할 수 있었다. 그나마도 그 겨울엔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그들 중 절반이 죽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겨울을 넘기고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보리, 밀, 옥수수, 완두콩 등의 씨앗을 뿌려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려 겨우 든 첫 열매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열매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좋은 씨를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칠면조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

감사절은 이와 같이 참혹한 역경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감사로 역경을 딛고 승리한 청교도의 신앙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후의 보상은 무엇이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며 그들의 드린 감사를 우리도 드리고, 그들이 누린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겠다.

■ 취재 노트

축제와 그 뒷 이야기들



■ 뒷 이야기 ①

행복한 비명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18일(토)에 성극, 뮤지컬, 악기 연주, 찬양대의 합창 등 다채로운 순서를 가진 초등부찬양대의 축제. 해마다 비전 2000운동에 즈음하여 전도의 목적으로 가지는 이 행사는 올해로 세번째였다. 이날의 발표회를 위해 초등부 찬양대는 기도와 예배 등의 신앙훈련을 겸하여 수개월간 찬양연습을 했다. 덕분에 작년보다 부쩍 성장한 신앙과 음악실력을 과시한 이번 발표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어린이는 일어나세요” 했더니 약 80명의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들 놀랐지만 초등부를 지휘하는 조대영 선생은 당연한 듯, 그러나 감격할 듯 눈물을 글썽였다.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논현국민학교에 자원봉사로 나가 몇개월동안 보수도 없이 컴퓨터를 가르치며 이번 발표회의 초대권을 논현국민학교 전교생에게 돌렸다는 조 선생은 시험 때만 아니었어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발표회 다음날인 19일(주일)에는 초등부 뿐 아니라 유년부에도 새친구가 너무나 많이 몰려와 선생님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 찬양, 악기연주, 성극,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초등부 찬양대 발표회. 찬양대원들은 준비과정을 통해 신앙과 음악실력이 부쩍 자랐고 발표회를 통해 초등부 뿐 아니라 유년부에도 새친구가 많이 찾아 오게된 풍성한 결실의 진지였다.



■ 뒷 이야기 ②

선영이의 소원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찬양예배 때, 구연동화로 시선을 모은 선영이와 지형이는 친한 친구사이다.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유년부에서 선영이와 지형이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동화구연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때의 경험을 살려 이주국민학교 동화구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여, 선영이는 1등상을, 지형이는 동상을 나란히 수상했었다고.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는 박정선 집사의 외동딸인 선영이는 만나는 친구마다 교회 나가기를 권유하는 열성파. 친구 김규리를 인도하여 지금은 규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지혜>를 열연한 지형이도 선영이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선영이에게는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다. 지형이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다. 할머니의 반대가 심한 지형이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다. 그러나 지형이의 눈이 많이 아파서 실명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유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형이의 눈이 나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는 후로 지형이의 부모님은 지형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신다. 아직도 지형이의 시력은 좋은 편이 아니지만 지형이의 부모님들은 교회가 그토록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단다.

지형이네 식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기도하는 선영이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할...



▲<다니엘의 기도>를 열연한 선영이(왼쪽)와 <솔로몬의 지혜>를 열연한 지형이(오른쪽)는 친구 사이. 지형이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선영이의 간절한 소원이다.

■ 서울교회 밖에서

“나중 영광이 더 크기를..”

차 정운 (강동중앙교회 목사, 목회자세미나 동문회 총무)

서울교회 설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짧은 시일 내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을 인해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이종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설립된 서울교회가 초기부터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목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덟 학기 동안 이종운 목사님의 해박한 강해 설교와 초빙된 국내외 석학들의 시기적절한 특강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김치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함께 나누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종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되어 보이지 않는 세심한 데까지 협력하여 주신 그 수고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제 서울교회에 새 예배당을 지을 터를 허락하셨으니 아름다운 전을 봉헌하여 “이 전(殿)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2:9)하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는 청교도적 신앙으로 사랑과 섬김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국의 모델 교회로서 교회사에 큰 획을 그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교회 밖에서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합니다”

박 래 창 (소망교회 장로, 한남 CBMC 회장)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전쟁과 가난과 분열과 여러가지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하시사 소망을 보여 주심으로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때에 한국교회를 들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안은 서울교회가 올해로 4주년을 맞으면서 터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새 교회당을 짓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삭처럼 또 새 우물을 파고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이땅에 가득하도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2000년대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은 큰 축복이요 참여한 자마다 큰 상급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새 교회당 지을 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 것처럼(요3:29) 서울교회를 바라보는 이웃의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립예배



▲ 1991년 10월 13일에 논현동 165 - 18번지, 6층에서 무릎 꿇고 드린 첫 주일예배
◀ 1991년 11월 24일에 드린 창립예배

■ 서울교회 밖에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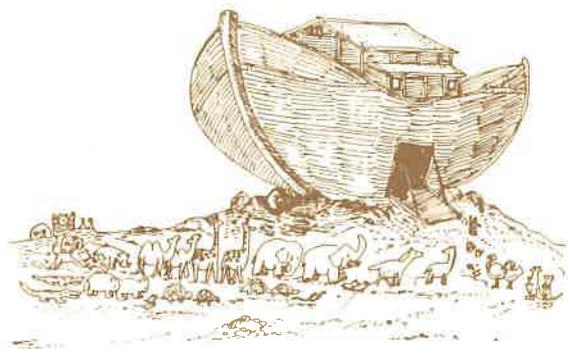
물리툰조이 몰릭 (방글라데시 알루미 교회 목사)

김치 동문으로서 교회설립 4주년을 맞은 서울교회 성도들과 김치세미나 관계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울러 주간 <순례자>의 창간 4돌을 축하드리면서 편집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 5월에 김치세미나에 참가하여 배운 교회성장 원리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4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마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교회의 성장, 훈련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 서울교회 안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서희숙(집사, 12교구)

1991년 11월 24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예기치 못한 거대한 역사를 작은 자들로 하여금 시작케 하셨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벅찬 감격의 발걸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만으로도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커져만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친히 인도하신다는 두려움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월이 살과 같지만 지나고 보니 4년이 어찌면 그리도 빨리 흘렀는지요.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부으시며 예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4년만에 우리 눈 앞에 응답하시었고 온 성도들은 마치 안쪽으로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 감격하면서도 두렵기까지만 한 이 커다란 응답에 그저 숨죽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때가 차매 다시 한 번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사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기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부족함없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대역사만 남았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교회를 위한 섬김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앞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잔이 넘치고 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 안에서 본 서울교회

“말씀의 터 위에 봉사로 굳게 서는 교회”

신용식(집사, 11교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된 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되찾게 되어 서울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것이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셨고, 출석하면 할수록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씀이 끝송이 같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 안팎에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하며 감탄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교회를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 서울교회를 21세기에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적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욱 힘써 말씀의 터 위에 봉사로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교회설립 4주년 기념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만 함께 하옵소서”

김태기(장로, 1교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4년 전,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불쌍한 양들이
논현동 6층 마루바닥 위에 엎드려 외치며
간구하던 눈물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어 주님 몸되신 서울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짧은 시간이 이토록 부흥 성장케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만이 주장되는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나라의 사명받은 민족교회로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인성회복을 간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지구촌 전대륙을 우리의 교구로 삼아 김치신학세미나로
세계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도모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육신이 불편한 신체장애자를 돌보며,
생활이 빈곤한 이들을 구제하며,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기도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며,
작은 물질을 쪼개어 형제애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누어줄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온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성전부지를 허락하셨으니

그 고마우신 은혜에 일만분의 일이라도 응답하고자
온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와 땀을 맺는 정성을 합하여
건축헌금을 작정하여 드렸습니다.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성군 다윗 왕에게도 허락지 않으셨던 성전건축을
미천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예배당 완성하게 하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하신 주님!

우리들의 날마다의 걸음이 믿음과 순종으로만 일관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 아멘 -

■ 결실을 생각하며 - 교회 설립기념일과 100교회 운동

“민족복음화의 비전으로 주는 자 되었으니 행복하여라”

박종상(전도사, 100교회운동본부 간사)

우리 교회는 작년에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결의하였다. 농어촌 마을마다 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 중 힘이 미약한 교회들을 지원하여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농어촌의 목회자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95년을 이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간 이 일을 우리는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이하 100교회 운동)으로 이름하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별로 후원교회를 선정하여 결연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별로도 참여하였다. 성도들의 관심있는 참여 속에서 100교회를 넘어 106개 교회를 후원하게 되었고 그 대상을 총회의 추천을 받은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하시는 목회자의 소속 교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지난 열한달 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각 전도회와 선교회는 재정의 60%를 농어촌 교회를 위해 활용기로 함으로써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활동을 위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보아 온 사람들 중 혹자는 이 운동이 '밀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다. 성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보다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한 제자의 계산과

일맥상통하는 충고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도, 복음전도의 현실도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농어촌 교회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민족복음화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이농현상은 농촌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인의 수가 줄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립이 불가능해 진 경우가 많다. 차체에 우리의 기도와 작은 물질적 도움은 농어촌 교회에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는 기쁨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랑도 경험하고 있다. 어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회자는 청정해역에서 난 한 무궁해 해산물을 선물로 보내오기도 하고, 과수원에서 탄 과일을 사랑과 함께 가득 담아 후원자에게 보내오는 농촌교회도 있었다.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새벽마다 서울교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간구한다는 편지도 있었다. 어떤 목회자는 맡겨진 자리에서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라 믿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며 감사의 서신을 보내 오기도 하였다.

100교회 운동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도시 교회들도 이 일을 배워 농어촌의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적으나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록 길을 트는 향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교회가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된 교회관을 확산시켜나갈 수 있으며 이 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8)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다. 작은 힘이나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가 아니던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있다. 쟁기를 놓은 농부들이 다시 쟁기를 잡고, 흙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도시로 떠나는 촌부들이 마음의 고향을 되찾을 것이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말랐던 시내가 다시 흐르고,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어 오던 동산,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산과 저 산에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100교회 운동은 우리 민족의 삶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함을 선포하는 생명운동이다. 이 운동은 도시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 확정 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밀빠진 독에 물붓는 운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할 '민족 복음화의 대업'인 것이다.

■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 농어촌 자매교회 초청 세미나에 참가하고서

중략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상봉하고 교제하는 반가움과 기쁨, 또한편 매일 염려를 끼쳐 드리고 사랑에 빚진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에 만감이 교차되어 감당키 어려운 설레임과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격의 추억이 이 다음 천국에 갈 때까지 저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성도들의 격조 높은 경건과 자상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새로운 각오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은 옷과 생필품들을 나누어 가지는 <나눔의 장>을 통해서 마치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연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직 서울교회가 내집 마련도 못하고 구석 구석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국내외 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펴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을 실현해 가는 모습들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 후략



■ 결실을 생각하며 -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

사회의 누룩운동으로 확산되기를



서 정직과 절제와 사랑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초석을 다질 수있도록 누룩운동으로 확산해 가야 할 것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교파를 초월한 범 기독교적인 결의대회가 있었다. 잇단 대형사고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회 병리현상으로서가 아닌 우리들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재촉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파악한 교계의 움직임이었다. 이 운동은 올해 1월 16일, 결의대회를 갖고 정직, 절제, 사랑 등 세 개의 분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문별 지침과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영적 각성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순결서약식을 출발신호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의 취지를 따라 정직과 절제와 사랑운동을 실천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회 내외적인 연합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 일은 일과성의 대회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질화 되도록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생활의 각 부분에서 정직과 절제와 사랑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초석을 다질 수있도록 누룩운동으로 확산해 가야 할 것이다.

■ <순례자> 창간 네 돌을 맞으며

모두의 참여 속에 바른 길 가는 순례자로

이 중 혁 (순례자 편집위원, 5교구)



교회의 창립과 같이 시작한 <순례자>도 창간 4주년을 맞았다. 사람이 내살 바키라던 아직 어린 아이일 테지만 <순례자>는 이제 완숙한 우리 교회의 '대중' 매체로 성장했다. 교회 설립 초기의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작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는 자체 평가를 해 본다.

사실 <순례자>의 성격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충고가 있었다. 편집자들의 고민은 어떤 틀 안에 가두고 관찰해 볼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벗어나 있었다. 먼저 어떤 기사를 머리(Head line)에 올릴 것인가하는 점이 매주 가장 고민스운 일이다. 순례자를 소식지로 정의한다면 우리 교회의 움직임, 교인들의 동정 그리고 교계 소식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난 일 중 우리와 관련이 되는 내용을 실어야 했다. 반면 선교 내지 신앙생활의 지침지로 본다면 매주 쟁점이 되는 내용을 찾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읽을 거리를 제공해야 했다. 그밖의 많은 의견들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매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로 교회행사에 관한 논설기사 위주로 <순례자>의 얼굴인 1면을 채워 나갔다. 2면은 이종운 목사님의 강해설교를 요약한 것을, 3면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글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담았고, 뒷면은 토막 소식과 도움이 될만한 짧은 글들을 모아 채워나갔다. 이렇게 지면을 구성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것은 아쉬움 뿐이다.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사명이듯, 우리 <순례자>도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할 것이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4면에 불과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외침을 담고 싶다.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은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생각이나 글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순례자>는 우리 교회에서 발간되는 유용한 매체이기에 무너질듯 무너질듯 쓰인 유치부 어린이들의 글에서 세월의 지혜가 그윽히 쌓인 연로하신 분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소망을 담았으면 한다. 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순례자>는 예배 후 손에 교회 앞에서 나눠 주는 매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성도 각자의 마음을 찾아보는 그릇이 되지 않을까. (매주 혈떡이지 않고 제작을 하는 여유도가 지게 될 터이고.)

그리고 당연한 귀결이지만 머지 않아 좀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면수도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글로 느끼기 어려운 것도 시원하게 커진 사진을 보면서 찾을 수 있고 예쁜 박스 속에 아름다운 시도 눈을 두고 싶은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소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에 많이 뿌려져 <순례자>를 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길동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순례자>를 보시고 느낌과 생각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온 성도들의 참여로 만들고, 온 성도의 눈에 읽혀지고, 온 성도의 인도로 <순례자>가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순례자>는 그 속에서 성도 각자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외침을 담고 싶다. 온 성도들의 참여로 만들고, 온 성도의 눈에 읽혀지고, 온 성도의 인도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소식

각부서의 연말행사

추수감사절과 설립기념일, 승전감사에 배를 드리는 오늘의 행사가 마치면 각 부서는 연말행사와 새해 사업들을 정리, 점검하는 일로 분주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남산교회와 여전도회가 각 지회별로 총회를 가지며, 오는 24일(금)에는 권사회가 총회가 열린다.

오는 주일(12월 3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1996년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을 임명하는 순서를 가진다. 또한 III부 예배 후에는 1996년도 교구총회를 갖고 교구일꾼 소개와 교구별로 다락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안전 토의시간을 갖게 된다.

신임서리집사 교육

교회는 1996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지난 주간에 실시했다. 면접을 마친 후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만 집사로 임명받게 된다. 면접을 한 서리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3차 중 1회 교육에 응하면 된다.

- 1차 / 28일(화) 오전 6 - 7시 30분,
- 2차 / 29일(수) I부 예배 후
- 3차 / 29일(수) II부 예배 후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1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11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11월의 새가족*

- 박명자 조순자 이미경 방정규 윤석주 한문경 여애라 신철민
 차승일 김미희 한상훈 구성현 손성순 김진희 이기병 이준열
 김익중 윤복순 송유숙 이옥녀 한준호 황지옥 한숙자 차순구
 홍성찬 고경은 문해식 박진울 박옥심 신현석 정애란 박근재
 이재승 윤갑란 진창근 김유숙 진주현 홍광숙 송지숙 전낙범
 최광주 정상묵 안홍배 채대병 한해경 김현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목회 단상 - 오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공의(公義)

박 귀 환 (목사, 1·2교구 지도)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근의 사태를 조망하다보니 구약성경의 여러 예언자들의 외침이 귓가에 들려온다. 특별히 예언자로서 품위가 고매하고 그 전하는 진리가 독특한 미가 선지의 비범한 예언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메아리치는 듯하다.

미가 시대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외환이 그칠 날 없었고 국내는 경제 번영의 여파로 부패가 극에 달했던 때이다. 관리들은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며 간사한 일을 계획하며, 지주들은 가난한 자의 집과 토지를 약탈하여 백성의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착취하면서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여 예언자들을 위협했다. 한 사회와 국가의 정의를 책임진 재판관과 종교가들마저 뇌물에 눈이 어두워 판단이 흐려지고 돈에 의해 행동이 좌우되었다. 사업가들은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저울 추를 속이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함으로써 재산의 증식과 부귀를 누렸다. 이런 풍토 속에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헐뜯고 멸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와는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며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선지자는

"여호와와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여 적국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부패한 백성들을 향한 미가의 예언은 공격적이고 과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가는 심판만을 예고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희망을 아울러 전하였으니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지 무엇을 원하시는 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공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6:8)고 외쳤다.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마27:19)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대적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 바른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의 도덕적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예언자가 되어 정치의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병어리가 되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밭에 밟히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은 일반 시민과는 달라야 한다. 여기에 종교인의 행동에 한계가 있다. 정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교회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중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질타가 아니라 대화와 화해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 위하는 공의를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시리라(암5:24).

서울주간기도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4주년을 감사하면서

1.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청교도 정신을 체득하여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2. 비전 2000운동의 승전을 감사하며, 신행일치의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3. 농어촌 교회들과 도시교회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민족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4. 연말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5. 더욱 힘써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6.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